

영암서 AI...광주전남 7·8월 제외 연중 발생

19일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견돼 전남도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의심축은 도축장 출하 전 농장 검사 과정 중 H5형 AI 양성인 확인된 것이다. 광주·전남에서는 7월과 8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 AI가 발생한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6월 10일까지 구례(9건), 나주(8건), 영암(6건), 무안(3건) 등에서 27건의 AI가 발생, 42농가에서 63만 9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어 3개월여 만인 지난 9월 14일 이후 나주 및 강진 오리 농장에서 2건, 담양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2건, 강진 중간상인 1건 등 5건이 연이어 발생, 9농가에서 4만4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 오리 1만7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했으며, 가축방역관과 조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이동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료를 추가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는 2~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모든 시군에서 닭과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실시해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축장이나 전통시장으로 출하하기 전 모든 오리농장을 빠짐 없이 검사해 이상이 없는 오리만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미래부-KT' 협업 빅데이터 기반 AI 발생 위험도 분석 모델을 통해 광주 광산구와 전남의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 순천시, 담양군 그리고 전북 부안군 등 10개 지자체를 AI 고위험 지자체로 지정할 바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日 정치·언론인 2명 명예도민 선정

한일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일본인 지역정치인과 언론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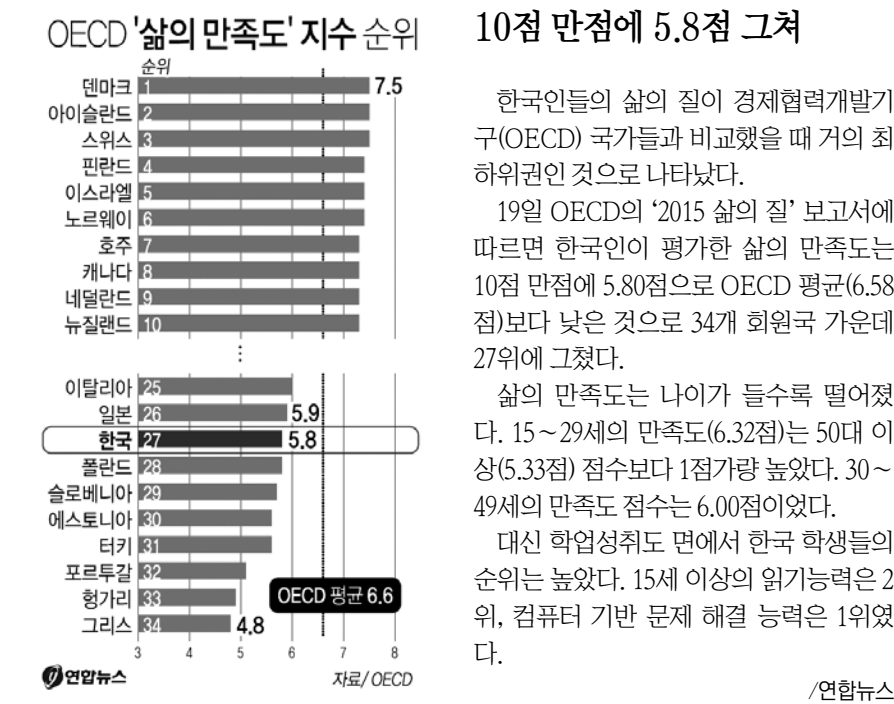
전남도는 20일 영산재에서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니시모리 시오조 전 일본 고치현 의원과 다치카와 마사키 일간지가 소속 언론인에게 전라남도 명예도민패를 수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시모리 시오조씨는 1997년 목포 공생원의 윤학자 이사 추모사업을 주도하면서 전남도와 인연을 맺었다. 2000년 5월에 전남도 명예관광홍보대사로 위촉돼 50여 차례 전남을 오가며 관광·문화분야에서 고치현과 전남도 간 교류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다치카와 마사키씨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언론에 칼럼을 게재해 전남의 골프장과 전남출신 프로 골퍼를 소개하고, 골프명문고로 성장하고 있는 함평고의 특집기사와 도내 유명식당을 50여차례에 걸쳐 소개하는 등 전남 알리기에 앞장 서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1972년부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국 민주화 운동을 기사화해 전 세계에 알렸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한국인 '삶의 질' OECD 최하위권



최근 강진군 성전면 (주)열린의 '청소년 항공체험학교'를 방문한 순천덕일지역아동센터와 완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보잉727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체험을 하고 있다. <(주)열린 제공>

폐교 아픔 딛고 '창공의 꿈' 키우는 교수들

지난 2012년 설립자의 교비횡령과 운영비리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 부실대학 감사에서 폐쇄 조치를 당한 강진군 성전면 '성화대학'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열린 공간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폐교가 된 학교를 사회적기업인 '(주)열린'으로 재탄생 시킨 사람들은 바로 성화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교수들이다.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던 이현석(46) 대표와 전 체육학과 교수 장철원(46) 이사, 김홍백(50·체육학과) 이사는 3년 전 폐교 당시 학교를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뛰어들었다. 이어 정성민(54·소방안전관리과)·홍성태(47·항공운항과)·권성기(53·토목과) 교수가 동참했다.

강진 성화대 전 교수 6명, 대학 부지에 '(주)열린' 설립
청소년 항공체험학교 열어...최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부지 매각 청산 절차 진행...“학교 비워야 하나” 걱정



이 너무 좋아해요. 대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와 달리, 반응도 즉각적이어서 가르치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주)열린은 '청소년 항공체험학교'와 항공조종을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던 '항공기 시뮬레이터'와 스튜어디스학과 실습용인 '보잉727 항공기'가 대표적인 장비다.

여기에서도 경비행기 체험은 단연 인기다. 항공운항과 교수였던 홍성태 담장이 직접 아이들에게 경비행기를 태워주는데,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할 때면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비행기를 본 적도 없는 사골 아이들

장철원 이사는 "학교 설립부터 함께 한 교수로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이 어떻게든 학교를 다시 세우고 싶었다"며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땐 주민들의 눈치는 물론, '미쳤다고 말리는 가족의 부정적인 시선들을 견뎌야 했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올해 초 전남지역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용과 체험용 드론 20여대도 구입했다. 항공기 체험을 마친 뒤 드론을 직접 띄우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상도 찍어 본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회사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탓에 학교부지가 매각되면 사용 중인 건물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하늘'이라는 꿈을 심어 준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하지만, 학교부지가 매각되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역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우리의 뜻처럼, 새로운 인수자도 '열린' 공간으로 사용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목표 관람객 90만명 달성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2015국제농업박람회에는 개막 나흘 만에 21만9000여명이 다녀갔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속에 전남에서 치러지는 국제 이벤트를 찾는 국내외 인파가 몰리면서 성공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장인 담양 죽녹원과 전남도립대 일원에 지난 18일 현재 누적 관람객이 85만5762명이 입장했

담양 대나무박람회 90만명 달성 '눈앞' 국제농업박람회는 나흘만에 21만명 다녀가

다. 지난 11일 관람객 70만명을 돌파한 지 1주일 만에, 지난달 17일 개막 후 32일 만에 85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2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지난 주말에만 10만 인파가 몰린 추세 등을 고려하면 박람회 가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015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역시 이날 "박람회장에 농업인단체와 어린이 집 원생,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말 가족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개막 나흘만인 18일 현재까지 21만9000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까지 나주에 있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농업의 힐링적 요소, 미래농업 등 일상에 접하기 쉽지 않았던 농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가족과 연인 등 뿐만 아니라 단체 관람객이 대거 몰리고 있다"며 "가을 나들이와 체험장으로 제격이어서 10월 말까지 방문객이 꾸준히 늘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사 원 모 집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구 분	근 무 처	응 시 자 격
연구개발	경력	광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로, 임베디드, VHDL 설계 유경험자 전자회로 및 PCB 설계 유경험자 PC기반 프로그래머
설치 및 A/S	경력	광 주 경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전공자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생산/관리	경력	광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관리, 전기, 전자 전공자
전화응대(A/S)	신입 경력	광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공장장 (황칠추출)	경력	황칠코리아 (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추출 해당부분 10년 이상 전문 종사자 (연봉 : 6,000~7,000) HACCP, GMP 유경험자
인바운드	신입 경력	황칠코리아 (광주/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모집부문 대표이사 수행비서

공통사항 : 1. 남자의 경우 병역필 및 운전 가능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1.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원서접수 및 문의사항

1)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9일(월)~2015년 10월 31일(토)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10(소촌농공단지) 총무부 (우:506-803)
E-mail : ziontech@daum.net
4) 문의사항 : (주)시온테크닉스 총무부 (062)944-3400

(주)시온테크닉스 / (주)황칠코리아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부동산 시장 전망과 유망 투자지역 大분석 무료세미나

누구에게나 명쾌하고 속 시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특강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10. 20(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교시 2015년 이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 및 트렌드별 투자 전략 대응법

2교시 (1) 아파트의 향후 시장 흐름에 따른 미래가치 분석 및 투자 노하우
(2) 리스크를 피하는 제대로된 실전 부동산 투자법 공개

3교시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핵심 부동산 및 토지 투자처 매물 공개 및 수익성 분석
(2) 광주 수익형 부동산 선택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자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자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광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자R&D부동산투자연구소 김영표